삼나소식

134호
11월 22일, 2026년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창세기 25장 1절~6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것은
>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 100세가 돼서 사람이 끝났을 때예요. 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
> – 본문 주일설교 (11/8) 중 발췌·정리 –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육신적으로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내 사라 또한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없었으나, 오직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은 사건은 곧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끝난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했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며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신의 인생이 다한 줄 알았으나 이후 75년을 더 살아 175세를 누렸고,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 또다시 여섯 아들을 낳는 초자연적인 강건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인물의 기적적인 삶에 그치지 않고 은혜와 믿음의 시대를 보여주는 신앙적 그림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자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없는 은혜를 힘입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 즉 나 자신이 십자가의 번제물로 날마다 죽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나타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자 받으시는 산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죄와 사망이 예수께로 옮겨졌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위해 내 육신의 소원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까닭이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참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장갑이 손의 실제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듯이, 성도는 자신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품과 실제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내 자신과 육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어부 경험을 의지해 애쓰던 베드로가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듯이, 가정 문제나 개인의 시련, 질병 등의 모든 고통은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 때 계속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타락한 육체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이므로, 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시험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쳐 평생 가보지 못한 길을 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다가오는 불의한 압박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옛 육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보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연출된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가 임하고 온전한 교회의 지체로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역시 개인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해 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신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영적인 질서를 따릅니다. 세월이 흘러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는 약속처럼, 우리는 환경이나 느낌, 감정에 속지 말고 오직 약속된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육신의 판단을 십자가로 보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한 인격이 되어 역사하도록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릴 때, 우리의 삶과 가정에는 주님의 승리와 축복이 매일같이 선포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시 92:14-15)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Life as a Glove: Letting Christ Work Through You

Passage: Genesis 25: 1-6 (ESV)
Pastor: Dong Suk Chung
This QR code is for the full sermon

By the time Abraham was 100, he could no longer have children. His wife Sarah was also too old to get pregnant, yet Isaac was born because of God's promise. God's Word is fulfilled when human effort runs out.

Then God commanded Abraham to sacrifice Isaac on Mount Moriah. When Abraham obeyed without delay, God stopped him and responded,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and poured out great blessings. Abraham thought his life was over at 100, but God was just getting started with him. After Sarah died, he took Keturah as a wife, fathered six more sons, and lived until 175.

This story does more than tell of one man's miracle. It points ahead to the age of grace. Mount Moriah represents the cross where Jesus would later die as a sacrifice for us. Believing in Jesus does not mean that since He died for me, I can live however I want. Because my sin and death were transferred to Jesus, His death on the cross is also the death of my old self with Him and the resurrection of my new life in Him. As the apostle Paul says in Galatians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This is the very purpose for which God made human beings, and it is the living worship He accepts.

Think of a glove. A glove has no power by itself. It only shows what the hand inside can do. In the same way, believers are empty gloves. God did not save us just so we could live a better life based on our own efforts. He came to live in us so people could see Him through us. But if we keep pushing our own plans, wishes, and worries, Christ has no room to work. Only when we set down our own efforts and give up, does the Lord within us begin to work for Himself.

Remember when Peter and the disciples struggled in the storm? They relied on their experience and skill, while Jesus slept on the boat. But the storm only got worse. It was only when they realized they were helpless and cried out to Jesus that He calmed the sea with one word. Many of us live that way. We try to fix our health, family problems, and money troubles. But these worries belong to the fallen, earthly "old self". Trying to fix everything by ourselves only makes us more stressed. When we stop trying to fix everything ourselves and turn to Jesus, He brings peace to the storm.

Knowing this changes how we handle problems and how we pray. True Christian prayer does not beg God to grant the wishes of an old self that has already died. Jesus taught us how to pray with the Lord's Prayer. It is saying "amen" to God's promises and asking for His will to be accomplished in and through us. It centers on spiritual nourishment, unity within the church body through mutual forgiveness, and the fulfillment of God's Kingdom on earth.

The hard times we face are not meant to destroy us. Just as God parted the Red Sea and struck the rock to bring out living water, He leads us in ways beyond our understanding. The same is true of problems at work or at home. People who treat us unfairly are not our enemies. They are tools God has placed in our lives to show us the old self still alive in us, so we can crucify it to the cross. When we see this truth, forgiveness finally comes, and we stand together as one church.

The life of a believer follows a spiritual order: as the spirit prospers, we prosper in all things and are in good health. Matthew 6 says not to worry about what we will eat or wear, but to seek God's kingdom first, and He will take care of the rest. God promises in Psalm 92:14 that those who follow Him will still bear fruit in old age and stay lively and strong. We should believe in these words and not be deceived by our changing circumstances, thoughts, or emotions. Believers are called to feed daily on God's Word, confess His truth with confidence, and speak words of life and blessing over their families and workplaces. When we crucify our worldly thoughts and our own selfish judgments to the cross, and when God's Word becomes our own character, we will enjoy His abundant life every day. Then the Lord's victory and blessing will be seen in our lives and families.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유치부실
유년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